

동네방네

곡성멜론, 홍콩 시작으로 해외시장 진출

곡성군이 대표적 소득 작목인 곡성 멜론의 동남아 시장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과 농산물 수출 전문업체인 경북통상이 수출계약을 맺고 2020년 곡성멜론 수출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이번에 수출되는 곡성멜론은 20fit 컨테이너 기준, 8kg 825박스(약 6.6t) 물량이다.

농업회사법인 곡성멜론은 지난해에도 곡성멜론을 홍콩과 대만 시장에 수

출한 바 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해외시장 다변화를 통해 멜론 수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내의 소비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도 9월 말까지 8kg 기준 825박스씩 총 20회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수출 예상 금액은 약 3억 8천 만원으로 멜론 흥수 출하기에 국내 가격하락 방지와 생산농가 소득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김태수 기자



장성 황룡강, 설렘 가득한 꽃길
비가 선명한 꽃잎을 뽐내고 있다.

녹음이 짙어진 지난달 31일 전남 장성군 황룡강변 정원엔 따사로운 햇살을 가득 머금은 붉은 꽃양귀비가 선명한 꽃잎을 뽐내고 있다.

/장성군

전남시장군수협 통합환경관리제도 지방이양 건의

환경 인·허가, 통합·관리 건의

전남시장군수협의회(회장 최형식 담양군수)가 지난달 31일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 분야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관리하는 통합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줄 것을 청와대 등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안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발전, 증기, 폐기물처리업 등 19개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을 연차적으로 통합 허가 받도록 한 제도다.

이에 따라 시·도와 시·군·구, 환경청장의 사무이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

경 분야별 인·허가와 사후관리업무를 통합환경 허가는 환경부장관이, 사후 관리는 환경청장이 위임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대규모 환경위해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환경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환경오염 행위나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자치단체에서 환경관리 권한을 갖고 관리해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다는 여론이 끊이지 않았다.

협의회는 특히 "인·허가와 사후관리 권한을 자치단체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은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의지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1일 (월)

음력 : 4월 10일

수도권 날씨

24~1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2 | 해질 / 19:4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전통이 살아 숨쉬는 '안동시' 관광거점도시 위상 굳힌다

글로벌홍보 마케팅, 관광객 유치 안동의 과거, 미래 영상물 제작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확대 운영

안동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관광거점도시 선정의 여세를 몰아 글로벌 홍보 마케팅 진행, 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 재개, 각종 관광객 유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명실상부한 전통문화 관광의 거점 및 경북의 관광 허브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홍보 마케팅 전개

안동시는 6~7월에 글로벌 미디어인 'HISTORY' 채널을 활용,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세계적 글로벌 미디어 그룹인 A+E Networks의 다큐멘터리 전문 HISTORY 채널과 협업해 안동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30분물 4편의 영상물을 현재 제작 중이다.

이 영상물은 뛰어난 영상미를 바탕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 상설공연장

/안동시

으로 영어로 제작돼 한국,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19개국에 올해 6~7월 중 황금시간대에 방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SNS용 영상 8편을 제작해 100만 뷰 이상을 목표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지원,

안동시는 단체관광객, 외국인 여행객 등을 유치하기 위한 맞춤형 상품 개발과 각종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단체관광 인센티브 제도를 보강해 더 매력적인 관광지로 어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외 단체관광객과 내일러 유치

인센티브는 지원 기준에 따라 인당 1만 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전통체험프로그램비도 일부 지원해 지역 관광업계의 어려움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외교사절단 등 초청 팸투어를 진행해 한국을 소개하는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안동을 알려 나갈 계획이다.

◆주요 관광지 입장료 할인

시는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행사 기간 중 주요 관광지에 대해 무료입장 또는 입장료를 할인한다.

/안동(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metroseoul.co.kr

화순군, 여름철 재난종합대책 선제 대응

재난관리기금 1.8억 투입 취약시설물 점검반 구성 수방 자재 관리 상태 점검

화순군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여름 강수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기 불안정 등으로 국지성 돌발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이 크고 기온은 지난해보다 0.5~1.5℃가량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태풍은 9~12개가 발생하고, 이 중 2~3개의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군은 종합대책을 수립,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 1억8000여만 원을 투입해 하천 31곳 13.8km 구간의 퇴적도를 준설했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실태점검 추진지침에 따라 실·과·소별 소관 재해



화순군 재난대비 공사현장 점검

취약시설물(대형 공사현장 10곳, 저수지 4곳, 급경사지 66곳, 지방하천 60곳, 소하천 400곳 등) 점검반을 구성해 실태 점검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간담회 실시, 방재 교육 실시, 비상 연락망 현행화 등 자연재난 대비 행동요령을 정비하고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배부해 실·과·소·읍·면과 관계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도록 했다.

13개 읍·면이 관리하는 수방 자재의 비축·관리 상태 등을 일제히 점검하고

부족한 수량을 파악해 재난 안전선, 우의, 장화 등 수방 자재 7개 품목 332개를 배부했다. 군은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폭염 피해 저감 시설인 그늘막을 34곳에 설치해 5월 중순부터 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282곳의 관리 상태와 쿨링포그 4곳의 작동 상태도 점검했다.

폭염 피해 예방 T/프티프 구성 등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 지침을 포함한 폭염 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전남=김태수 기자 ts7080@

경북도, 지역농협과 사회적경제기업 돕는다

안동·포항농협 파머스마켓 특판전 사회적경제기업 22개사, 38종 상품

경북도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형마트 진입을 돕고자 1일부터 안동농협과 파머스마켓에서, 5일부터는 포항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각각 1주일 동안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상품 특판전을 연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잡곡 세트, 오미자 김, 건강보조식품, 애견용 간식 등 도내 우수 사회적경제기업의 38가지 제품이 20~30% 할인되고 다양한 제품의 시음·시식 행사와 함께 사은품 증정도 이뤄진다.

경북도는 지난 7일 연 'CJ프레시웨이 초청 사회적경제 상품 품평회'에서

바이어의 컨설팅에 따라 선정된 상품 가운데 최종 22개 기업 38종의 제품을 이번 특판전 상품으로 선정했다.

이들 제품은 포항, 안동, 구미, 의성, 영덕, 칠곡 등 경북 11개 시군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상품으로 구성됐다.

경북도는 특판전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 할인쿠폰과 판매수수료 등 판매가의 최대 40%를 지원한다.

/경북=문봉현 기자 newsmun@